

사찰중심 다양한 사회운동 필요

다원화 된 사회속 차별화 된 대비 있어야

박수호 씨, 불교학 학술대회서 주장



“정보화에 따른 종교 영역의 변화 전망에 따라 △불교 시민사회 형성과 지방화 △신형결사 △전문화 △차별화와 연대 등을 포교전략으로 수립해야 한다”

중양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박수호 연구원(사진)은 9월 6일 고려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제19차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정보화로 인한 종교영역의 변화와 포교전략 검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씨는 “불교계는 아직도 ‘정보사회’라는 환경적 변화에 대한 대응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며 “정보화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인간의 본원적 한계로 여겨졌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의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해, 종교는 그간 전제했던 인간의 실존적 한계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불교의 현실을 지적했다. 박 씨는 “포교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사회적·역사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불교 역할 검토 △포교 콘텐츠에 대한 검토 △컨텐츠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매체의 확

인터넷에 적합한 신행유형 개발을

타종교·이웃 절과 연대 포교 바람직

보 △포교영역의 개척과 담당인력 개발 △포교정책 검토 등 다섯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또 “개인주의화, 네트워크화, 유연화, 상대화라는 정보화의 4대 경향성은 종교의 사사회(世事) 강화, 종교적 관계망의 확장, 종교적 권위의 재분배, 종교 다원주의의 강화라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박 씨는 종교의 사사회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시민사회 내부에서 불교의 위상제고, 사찰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사회운동 참여, 지역문화 거점으로서 사찰의 활용, 사회운동과 관련한 불교 교리의 재해석과 정당화, 사찰의 역사·문화적 자원의 지역사회 공유를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적 관계망 확장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적합한 신행유형을 개발하고, 포교주체들은 인터넷 사용 역량과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수월력·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종교적 권위의 재분배를 위해서는 성직자의 권위를 유지하면서도 신도들과 새로운 관계를 수립해야하며, 이는 ‘전문화’ 전략으로 극복할 것을 제안한다. 또 상대적으로 다원화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차별화’ 전략과 타종교, 이웃 사찰과의 ‘연대’도 적극적인 포교 전략의 하나라고 박 씨는 주장했다.

오유진 기자 e_exist@buddhapia.com

“백과 공선(1767~1852)은 입제선을 중심으로 조선 선문의 정체성을 확립, 체질강화 작업을 확실히 계승한 인물이며, 초의 의순(1786~1866)은 고요한 혼자만의 깨침을 구하는, 체제로서의 선문에 무관심한 인물이었다.”

불교학연구회 제19차 학술발표회에서 ‘조선후기의 입제선 연구: 선(禪)은장애 내포된 원형지향성’에서 박재현(경희대 강사) 씨는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지금까지 ‘백파=입제선 지상주의자’, ‘초의=합리주의자·객관주의자’라는 일반적인 평가와 상충되는 주장이다. 박 씨는 “고려불교에 비해 조선불교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조선 후기 선 연구에서 편향된 시각이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씨는 백파의 <수선결사문(修禪結社文)>을 인용해 “백파는 결사를 통해 청정하고 투철한 계율 중심의 승가

“백과, 조선禪門 정체성 확립, 청정계율 중심 승가 표방”

박재현 씨, 기존평가와 상충된 주장

를 표방하면서 조사선의 이상을 구현하려 했다”며 “백파의 사상사적 정향과 수선결사의 성격에 대해 깊게 이해할 때, 백파의 선 이론이 입제선만을 취하고 여래선과 의리선을 버리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좀 성급한 감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백파는 선불교의 정체성 확립 방인의 하나로 삼중선을 제기한 것으로 집착된다”고 덧붙였다.

백파의 삼중선은 조사선을 가장 수승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의리선이나 여래선과는 구분되지 않고, 그들 사이의 경계를 없애고 포섭한 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박 씨는 “백파가 입제선을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종 5가를 분류했으며, 조사선만을 격외선으로 봐야한다”는 초의의 일관된 주장은 당시 대세로 자리잡은 입제선을 중심으로 조선 선문의 부흥을 도모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백파의 의중을 읽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정병모 교수가 쓰는 불교 미술의 美

불상(7)

신선세계의 아미타불

필자가 근무하는 경주대학교의 뒷산인 선도산(仙桃山)이다. 우리에게 정수를 상징하는 선도복숭아로 알려진 선도라는 말은 신선사상과 관련된 명칭이다. 신선사상의 극락은 신선세계이고 그곳에는 서왕모(西王母)가 주재하고 있다. 고대에는 죽어서 이곳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널리 유포되었다. 그런데 이 산 위의 정상을 오르면 큰 바위 위에 불상이 조성되어 있다. 게

밌었고, 그 신선세계가 선도산이라고 믿었다. 중국의 신선세계가 서왕모가 계신 천산(天山)이듯이, 신라의 신선세계는 성모가 계신 선도산인 것이다.

신라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선계인 선도산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성모를 모신 정상에 마애삼존불상을 조성한 것이다. 그것도 좌우에 대제비보살과 관음보살을 거느린 아미타삼존상을 모셨으니 서방극락세계를 구현한 것이다. 신라가 불교의 나라가 되면서 선도산이 신선 세계에서 서방극락세계로 바뀌었음을 선포한 것이다.



◁서악동마애삼존불상 선도산은 신선세계와 서방극락세계가 공존한 신라의 이상세계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선도산에 아미타불을 모시면서 성모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히려 성모는 불사를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진평왕 때 안흥사에 지체라는 비구니가 불전을 새로 수리하려 했는데 힘이 모자랐다. 그때 꿈에 예쁜 구슬로 머리를 장식한 선도산 성모가 나타나 금 10근을 주어 불사를 돕겠다고 했다. 꿈을 깨 뒤 성모의 자리 밑에서 금을 꺼내어 불상 3상을 장식하고 벽 위에는 53불과 육류성종 및 여러 천신과 오악의 신군을 그리고, 해마다 불과 가을 두 계절의 10일에

경주 선도산에 신선·서방극락세계 공존 성모 모신 신라인들 마찰없이 불교 수용

다기 바위 뒷면에는 ‘성모구기(聖母舊基)’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고 불상 옆에는 새로 복원한 성모사가 있다. 성모는 신선세계의 서왕모와 같은 신이다. 어떻게 산 정상 위에 불상과 성모가 나란히 모셔져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은 <삼국유사> 감동편 ‘선도성모가 불교행사를 수회하다(仙桃聖母隨喜佛事)’에서 풀이할 수 있다. 선도산의 성모는 원래 중국 황제의 딸 사소(嫫毘)이다. 그녀는 신선의 술법을 배워서 신라에 머물자, 아버지가 소리가 발에 신신을 매달아 다음과 같이 소식을 전했다. “소리가 머무는 곳을 따라가 집을 삼아라.” 사소는 아버지의 분부대로 소리를 따라가니 선도산에 멈추어서, 그곳에서 살며 지선(地仙)이 되었다. 그리고 성모는 신라의 시조가 된 성자 둘을 낳았는데, 바로 박혁거세와 알영이다. 신라는 건국 때부터 신선사상을

넘겨 신도를 많이 모아 모든 중생을 위해 전철법회를 베풀었다. 신선세계를 믿던 신라인들은 불교를 받아들일수록 별 마찰도 없이 평화롭게 이양한 것이다. 성모가 불사를 돕고 불상과 더불어 신군도 모셨으니, 서로 밀월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통일신라 때에도 성모는 좁은 활동하였다. 불교의 나라가 되었어도 성모는 신라인들에게 여전히 사랑받는 신이었던 것이다.

세계는 끊임없는 종교전쟁으로 죄없는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종교들이 어깨를 나란히 했음을 역사가 실증하고 있다. 지금도 종교간의 갈등이 다소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미한 편이다. 선도산이 보여주듯이 우리는 이천의 신앙을 탄압한 것이 아니라 포용하였는데, 이러한 너그로움이 우리민족의 고유한 심성인 것이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판본별 대장경 목록정리 등 3과제 불교관련 기초학문 지원대상 선정

교육부·학술진흥재단



◁국보 제204호 대장경판본화엄경 부분.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9월 4일 기초학문 육성지원계획에 따라 인문사회 분야 297과제에 680억원(신규지원 155과제 280억원) 등 모두 737과제에 97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선정된 불교관련 과제는 국학고전 분야의 △불교 언어/판본별 대장경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 △국보 제204호 주본화엄경 판제 36에 가입된 각필구결의 해독 및 번역, 국내외지역 분야의 △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 불교 유적의 연구-4-8세기 인도불교미술과 문화교류양상의 탐색 등 3가지다.

이 가운데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불교 언어/판본별 대장경목록 정리 및 해제 작성’은 지난해에 지원과제로 선정돼 연구가 진행중인 과제로, 5건이 선정됐던 지난해와 비교해 불교관련 연구는 크게 준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의 ‘불교 언어/판본별...’은 지금까지 한역대장경 14종과 티베트어 대장경 3종을 산스크리트

원전과 대조하는 작업을 끝냈다. 올해 신청한 연구는 팔리성전학회에서 정리한 팔리어 대장경 전체, 새롭게 입수한 나르판탈, 조넨판 티베트어 대장경 마이크로필름 내용에 대한 목록 작성 등의 작업이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최종 연구결과를 국내·외 관련 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해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보 제204호 주본화엄경...”의 이승재(서울대) 교수는 “현재까지 가장 오래되고 정교한 번성도를 가진 국보 제204호 주본화엄경은 본문에도 각필이 기재돼 있음이 확인돼 화엄경 해석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아시아 구법승과...”의 연구자 이주형(서울대) 교수는 “<왕오천축국적>을 남긴 해초 외에도 일찍이 인도를 찾았던 고대 한국의 구법승이 존재한다”며 “한국불교미술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인도의 영향이 다양한 양상으로 반영돼 있다고 알려졌다”고 연구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오유진 기자

사명당, 9월 문화 인물 16일 고성서 학술대회



문화관광부는 사명당(1544~1610)을 9월의 문화 인물로 지정했다. 사명당은 임진왜란 때 의승도대장으로 서투와 외교활동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조선 중기 고승이다. 저술로는 <사명당대사집>, <분충서난록> 등이 있다.

사명당기념사업회는 9월 16일 강원도 고성 문화의 집에서 사명당을 기리는 현공다례, 판소리, 학술대회 등을 개최하며, 28~29일에는 봉은사에서 보은·서산·사명 축제와 기념 학술강연회를 연다.

(주)천호식품이 만들면 믿을 수 있습니다

2009 천호식품 프로젝트-한국인을 감동하게

8월 15일 KBS TV 'VJ특공대' (밥상 위에 검은 열풍)

내 머리에 부는 검은 바람!

검정콩 흑발환 ▶ 한달분 16,000원

머리카락 빠지는 고통을 누가 아는가?

머리 감고 나면 세면대에 걸리는 머리카락 때문에 속상하시죠?
천호 검정콩 흑발환을 드셔보세요.
한달이면,
세면대에 걸리는 머리카락이 줄어듭니다.

자신에게 물어 보세요!
천호식품 검정콩 흑발환

검정콩 흑발환은 검은색 열풍의 주인공인 검은콩, 검정깨와 함께 하수오를 주성분으로 하여 만들어진 머리카락에 좋은 제곱입니다. 머리카락은 있을 때 지켜주어야 합니다. 머리카락의 생장에는 모근의 영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머리카락,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검정콩흑발환으로 지금부터 지켜주세요. 머리카락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강하게 잡아드립니다.

모발의 힘, 검정콩 흑발환에 듬뿍!

검정콩(인공) 영양오일의 수확에 속해 모발의 성장에 꼭 필요한 아르기닌과 시스테인이 함유되어 있어 굵어지는 머리카락과 수(水)가운 보강에 좋습니다. **검정깨** 검정깨는 흑임자라고도 하며 몸을 가뿐하게 하고 모발에 좋은 영양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한방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약재입니다. **하수오** 흰머리를 없애는 고사에서 유래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모발에 좋다고 전해오는 머리카락에 좋은 대표적인 한방재료입니다.

빠지는 머리 때문에 머리 빠지게 고민하시니까?

천호 검정콩 흑발환은 모발영양식품인 관계로 광고에서는 여러분의 고민에 대해 시원하게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로 천호를 **공판중 오욕우에 천호번호(080-565-1006)**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모발에 좋은 검정콩, 검정깨, 하수오가 들어 있어 모발의 생장과 건강에 도움을 주는 천호 검정콩 흑발환에 대해서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천호식품 창립19주년 행사로 두박스(96,000원)를 구입하시면 **특별 1명(한달)에 53,000원**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서 실제로는 두 박스를 43,000원에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행사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행사기간: 9월 30일까지] 특별 드림!**
검정콩흑발환 1박스(180g) ▶ 16,000원, 검정콩흑발환 1박스(180g×3박스) ▶ 43,000원

사은품

1. 검정콩흑발환 두박스를 구입하신 고객님께 **특별 선물(1박) 53,000원**을 증정합니다!
2. 우수분포사 우수고객을 위해 **특별 선물(1박) 19,000원**을 증정합니다!
3. 우수분포사 우수고객을 위해 **특별 선물(1박) 19,000원**을 증정합니다!
4. 우수분포사 우수고객을 위해 **특별 선물(1박) 19,000원**을 증정합니다!

천호식품 080-565-1005 www.chunhomall.co.kr